

학문, 문화, 예술의 성지인 다자이후 덴만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가와라 미치자네(845-903)는 헤이안 시대(794-1185)의 학자이자 당시의 정치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로, 미치자네의 공적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미치자네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의 영혼을 다자이후 덴만구에서 모시며 학문, 문화, 예술의 신인 '덴진'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자이후 덴만구에는 매년 1,000 만 명이 넘는 참배객이 방문하며 문학과 서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미치자네를 기리고 있습니다.

초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를 매우 아꼈던 미치자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경내에는 6,000 그루의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신을 모시는 혼덴으로 참배객들을 안내하는 3 개의 다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며 신지 연못은 '마음 심(心)'이라는 한자를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이후 덴만구는 일본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사 중 하나로 일본 전국에 있는 12,000 개의 덴진 신사의 총 본사입니다.